

1930년대 시에 나타난 가족의 양상과 그 의미*

정 호 구**

차 례

- | | |
|----------------------------|----------------------|
| I. 문제제기 | IV. 부계중심주의의 가족과 '出家' |
| II. 개인과 자유 속의 가족 -이상의 시 | - 백석의 시 |
| III. 계급적 연대와 사상의 가족 -임화의 시 | V. 결어 |

I. 문제제기

1930년대가 시작되면서 한국시단은 이른바 '현대성'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다. 여기서 말하는 현대성이란, 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의 확대와 심화, 그리고 그에 따른 다양한 시작방법의 구현과 여러 가지 양태의 시가 다채롭게 창조된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시 자체 내의 현대성과 더불어 1930년대가 되면 우리 시 속에서는

* 이 논문은 2005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 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2005).

**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반 사회문제를 둘러싼 의식의 측면에 있어서도 현대성이 드러난다.¹⁾ 그 가운데 두드러진 것으로 사회의 최소형태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의식의 문제에서 드러나는 현대성을 거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가족의식의 문제에서 드러나는 현대성이란 ‘단수성 가족(The Family)’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소위 ‘복수성 가족(Families)’의 이데올로기가 시인들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인식되고 내면화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단수성 가족의 이데올로기란 정상가족의 형태를 오직 한 가지만으로 고착시켜 놓고 일체의 다른 것을 배제하는 것이다. 그에 비하여 복수성 가족의 이데올로기란 정상가족과 비정상 가족이 따로 있을 수 없으며 가족에는 수많은 형태가 현실적으로 존재해 왔고 또 존재할 수 있다는 시각을 의미한다.²⁾

유전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가족은 생명의 주체인 DNA의 성공적인 전달을 위한 숙주이자 매개체에 불과하다. DNA의 이와 같은 숨은 욕구에 의하여 개인은 물론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³⁾

그러나 사회구성체적 관점에서 보면 가족은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창조된 공동체이자 제도이고 보다 큰 인간사회를 전개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작은 집단이다. 이와 같은 가족은 생명의 주체인 인간들의 소망과 의지 그리고 지향성에 따라 나타난 사회적 현상으로서,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지니고 사회 속에서 존재하며 그 안에서 기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수성 가족 이데올로기가 공고해짐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 개념은 법적인 결혼, 자녀를 가짐, 양친이 존재함, 영구적인 결혼생활, 가부장제, 연령과 성에 따른 서열 및 신분관계, 배타적인 성애관계, 異性간의 결혼, 두 명의 성인이 중심이 되는 가구 등과 같은 내용을 절대적인 것으로 삼아 왔다. 이와 같은 가족 개념 속에서 이들 기준에 벗어나는 것은 비정상적인 가족,

1) 여기서 말하는 의식의 ‘현대성’이란 중심주의와 서열주의, 그리고 절대주의를 넘어서 세계를 탈구축의 ‘차이’와 ‘생성’의 장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2) 다이애너 기턴스, 『가족은 없다 - 가족이데올로기의 해부』, 안호용 외 2인 옮김(서울 : 일신사, 2003), 22쪽.

3) 에드워드 윌슨, 『인간본성에 대하여』, 이한음 옮김(서울 : 사이언스북스, 2002), 10~12쪽, 41~86쪽.

최재천, 『여성시대에는 남자도 화장을 한다』(서울 : 궁리, 2004), 43~50쪽.

일탈적인 가족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가족개념은 회의나 성찰 혹은 반성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절대화되었다. 이때 그와 같은 가족개념의 무반성적인 수용은 한편으로 질서 있는 사회를 유지시키는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달리 보면 가족 구성원은 물론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상당한 억압을 느끼도록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전통적인 단수성 가족 이데올로기는 그만큼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방편이면서 또한 커다란 사회적 권력이자 압력으로 개인에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1930년대 우리 시에 나타난 가족문제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전통적인 단수성 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해 반성적인 태도를 보이며 그것을 해체하고 복수성 가족의 이데올로기를 지향하고 수용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그것은 앞서 말했듯이 1930년대 우리 시가 가족의식에서 보여준 현대성의 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거니와 이런 1930년대 우리 시의 새로운 양상을 탐구하는 데 적합한 텍스트를 제공해주는 대표적 시인으로는 이상과 임화를 앞자리에서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상과 임화의 시를 중심적인 자료로 삼을 것이다. 이상과 임화의 시는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 이데올로기를 과격하게 해체시켜 새로운 가족형태를 드러내 보이면서 1930년대 우리 시단에 복수성 가족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구현되기 시작하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에서는 백석의 시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⁴⁾ 백석의 시는 기존의 전통적인 단수성 가족 이데올로기를 거의 그대로 비판 없이 수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를 이 자리에서 다루는 까닭은 1930년대 우리 시가 이상이나 임화의 시처럼 과격적인 가족의식을 선구적으로 생산한 경우와 더불어 백석의 시에서처럼 보수적인 가족의식도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요컨대 1930년대 우리 시 전체가 가족의식의 현대성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것은 아니지만 이상이나 임화와 같은 선구적인 시인에게서 그것은 두드러진 징후로 나타났고 그 징후는 예사롭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4) 1930년대 시인은 그 수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 임화, 백석을 대표적으로 다루는 것은 이들의 시에 가족의 문제가 가장 빈번하고도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으며, 그들의 시에 나타난 가족상과 가족의식이 특별히 문제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다.

그런데 백석의 시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그의 시는 앞서 말한 바처럼 전통적인 단수성의 가족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면서도 일부의 작품에서 새로운 가족상을 은연중에 드러냄으로써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이데올로기에 작은 균열을 내고 있다. 이것은 그의 시가 지닌 보수성과 더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살펴볼 만한 부분이다.⁵⁾

한 인간은 물론 한 시인의 의식을 살펴보는 데에 있어서 그들이 지닌 가족의식은 그들의 내면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은 가족이야말로 우리들의 삶과 사회 행위 속에서 가장 가깝고도 긴밀하게 물리적, 정신적, 정서적 접촉을 이루는 대상이며, 사회적 특성을 집약적으로 압축시켜 담고 있는 사회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칫 무반성적으로 대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930년대의 대표적 시인인 이상, 임화, 백석 등의 시에 나타난 가족의식을 살펴보는 일은 그들 각각의 의식수준 및 그 내용의 실상과 의미는 물론 1930년대 우리 시의 의식수준 및 그 내용과 의미를 동시에 파악해 보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같은 1930년대 우리 시의 가족문제를 현대성이란 측면에서 고찰한 기존의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각각의 시인들에게서 나타난 가족의식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살펴본 예가 있으며, 최근 이해원에 의하여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1920년대와 1930년대 시에 나타난 가족의 문제를 탐구한 논문이 있다.⁶⁾ 이해원은 여기서 이상의 시를 제외하면 식민지 현실에 대한 저항이 급선무였던 이 시대에 전통적인 가족 개념은 오히려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시에 나타난 가족의식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5) 1930년대 가족의식의 현대성을 논하는 자리에서는 오장환의 시(시집 『성벽』, 『헌사』)도 다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그의 시에서는 가족문제를 본격적으로 탐구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의 작품 가운데 하나인 『姓氏譜』는 姓氏譜를 부정함으로써 이른바 ‘姓 이데올로기’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이채롭고 의미 깊은 예에 해당한다.

6) 이해원, 「1920~30년대 시에 나타난 가족과 여성」, 『여성문학연구』 13호(2005.6), 57~85쪽.

시대적 징후를 앞서서 보여주는 실례이며, 이와 더불어 사상적, 혁명적, 계급적 가족을 주창하는 임화의 시와 부분적으로 기성의 가족개념에 균열을 내는 백석 및 오장환의 시를 주목해 보면 1930년대 우리 시에 나타난 가족의식은 한편으로 단수성 가족 이데올로기를 견지하면서도 실은 복수성 가족이데올로기의 출현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은 이 땅의 1930년대가 사회사 및 문명사적 측면에서 보여준 현대성⁷⁾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판단된다.⁸⁾

II. 개인과 자유 속의 가족 - 이상의 시

조금 거칠기는 하나, 편의상 구분하자면, 가족에는 ‘주어진 가족(운명적 가족)’과 ‘만드는 가족(선택적 가족)’이 있다.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혈연에 의하여, 사회적 제도에 의하여 한 가족에 편입된다. 이것을 주어진 가족 혹은 운명적 가족이라 부르고자 한다.

그러나 그가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되거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순간부터 그는 상당부분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외형적인 가족형태는 물론 그 내용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만드는 가족 혹은 선택적 가족이라 칭하기로 한다.

이상의 시를 보면, 주어진 가족과 만드는 가족에 대한 태도와 의식이 서로 다르다. 그는 주어진 가족에 대하여 반성적으로 회의하며 그에 의한 압력을 지적하고 비판하지만, 그 주어진 운명적 가족관계를 자신의 힘으로 온전히 부정하거나 해체시키지 못한다. 이와 달리 그는 만드는 가족에 대하여서만은 엄청난 실험과 모색을 가하면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기존의 가족상은 물론 주변의 가족현실과 다른 그 자신만의 가족관계를 창조해내고자 한다.

7) 이 점에 관해서는 김진송, 『서울에 판스홀을 許하라』(서울 : 현실문화연구, 1999), 신명직, 『모던 뽀이 京城을 거닐다』(서울 : 현실문화연구, 2003), 이성욱, 『한국 근대문학과 도시문화』(서울 : 문학과학사, 2004) 등을 참조할 것.

8) 이 논문은 <개신어문학회 춘계 발표회>(2005. 5)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보완한 것임.

먼저 이상이 그의 시에서 주어진 가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나의아버지가나의곁에서조을적에나는나의아버지의아버지가되고또나는나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가되고그런데나의아버지는나의아버지대로나의아버지인데어찌자고나는자꾸나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가되나는왜나의아버지를경충뛰어넘어야하는지나는왜디디어나와나의아버지와나의아버지의아버지와나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도를한꺼번에하면서살아야하는것이나

- <鳥瞰圖 詩第二號>의 전문⁹⁾

위 시에서 이상은 부계혈통에 의한 가부장적 역할을 ‘아버지노릇’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는 이른바 확대가족 개념에서 비롯되는 부계혈통의 먼 조상들까지를 생각하며 당대의 ‘아버지노릇’뿐만 아니라 누대의 아버지 노릇을 그에게 강요하는 가족현실에 대해 고민한다. 자신의 실질적인 아버지가 나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 대신 가문의 아버지 노릇을 떠맡아야 하는 이상은 그것을 강요하는 현실과 그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소망 사이에서 깊은 갈등에 빠져든다. 아버지, 가장, 장손, 중손, 종가, 조상 등과 같은 이름은 모두 부계혈통중심주의가 만들어낸 역할의 한 명칭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만들어진 사회적 이름과 개념 앞에서 이상뿐만 아니라 가부장제 가족체제 속의 한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 가족체제 속으로 들어가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이상은 이와 같은 주어진 가족사회의 외압에 저항감과 당혹감을 느끼지만, 그 주어진 가족의 견고한 이념과 구조 그리고 내용을 어찌지 못하고 그 앞에서 고민할 뿐이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고민은 다시 말하여 아버지 노릇이라는 주어진 가족사회의 가면을 수용하는 것과 개인으로서의 자기 자신 되기 사이에 끼여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의 또 다른 시 『門閥』을 보기로 하자. 여기서 이상은 운명적 가족의 압력을 절감하고 보다 참담해 한다.

9) 본 논문에서 인용한 이상의 모든 시는 이승훈이 편저한 『李箱詩全集』(서울 : 문학사상사, 1983)에 근거하고 있다.

墳塚에게신白骨까지가내게血清의原價償還을強請하고있다. 天下에달이밝아
서나는오늘오늘떨면서到處에서들킨다. 당신의印鑑이미失效된지오랜줄은꿈에
도생각하지않으시나요－하고나는의것이대꾸를해야겠는데나는이렇게싫은決算
의函數를내몸에지닌내圖章처럼쉽사리끌러버릴수가참없다.

- <門閥>의 전문

문벌이란 핵가족을 넘어, 堂內를 넘어, 門中을 뜻한다. 이런 소위 ‘집(家) 위주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부모와 자식의 확대판인 조상과 자손은 시혜자와 수혜자, 권력자와 예속인, 신성인과 세속인, 권한을 가진 자와 의무를 행사해야 하는 자 등으로 이분화되며 이들 사이가 孝라는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와 결합되면서 신분관계, 서열관계, 주종관계로 맺어진다.¹⁰⁾ 개인으로서의 자기 자신 되기를 꿈꾸는 이상에게 이와 같은 가족관계와 그 관계 속에서 강요되는 역할과 의무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다. 그는 죽어서까지도 조상이란 이름으로 “血清의原價償還을 強請”하는 것 같은 강력한 문벌 이데올로기 앞에서, 그 문벌의 다른 이름인 조상을 향하여 당신의 권한은 실효된 지 오래라고 외치고 싶어도 이 이데올로기를 숭상하는 수많은 주변 사람들의 눈길에 무섭고 그 막강한 힘을 헤쳐할 능력이 부족하여 그만 갈등하며 실의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조상이 죽는 즉시 신적인 존재로까지 승격되고, 조상과 후손, 부모와 자식 관계가 천륜으로 관념화되고 있는 유교문화의 가족이데올로기 속에서 이상뿐만 아니라 개인을 발견하고 싶은 사람들은 상당한 갈등과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그런 가족사회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수평적 인간관계 속의 개인은 들어설 자리가 거의 없다.

그런데 이처럼 문벌과 조상이 요구하는 가족사회의 외면적 자아와, 개인으로서의 내면적 자아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고 고통을 받는 이상이 <肉親>이라는 작품에서 보여준 태도는 매우 격렬하다. 그는 이 작품에서 육친인 아버지를

10) 한국가족연구의 선구자인 최재석은 한국가족의 지배이데올로기를 부계에 의하여 계승되는 ‘집(家) 爲主의 사상’이라고 부르면서 집(家)이 개인에 우선하고, 모든 개인은 반드시 집이라는 초개인적 존재에 소속되어 신분서열의 차이가 있는 인간으로서의 역할만을 의식하고 있을 뿐, 집으로부터 독립된 평등한 인간으로는 조금도 의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최재석, 『韓國家族研究』(서울: 일지사, 1982), 211~224쪽. 이상의 시를 보면,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집(家)과 개인 사이에서이다.

“크리스트에酷似한檻樓한사나이”로 표현하면서 그가 자신에게 “終生과殞命”까지 “떠맡기려는사나운마음씨”를 가졌다고 폭로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殺父충동’ 혹은 ‘殺父의식’까지 느끼면서 그를 살해하지 않고는 절대로 진정한 자아찾기와 자아만들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충동이자 의식이고 생각일 뿐이다. 그는 자신의 이와 같은 “新鮮한 逃亡”이 결국은 현실 속에서의 온전한 성공과 성취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게 가부장제의 ‘집(家) 위주의 이데올로기’는 그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로서의 즐거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의무를 짊어진 자로서 감당해야 할 짐처럼 인식되고 느껴진다. 외부로부터 타율적으로 주어진 권력은 그렇게 주어진 의무와 마찬가지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은 권력과 의무 속에 갇든 허상과 모순을 보았던 것이고 그것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과 같은 것임을 정직하게 인지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家庭>이라는 작품을 통하여 “나는우리집門牌앞에서여간성가신게아니다”라고 토로한다. 자신의 집 대문 앞에 주인의 자격으로 달린 자신의 문패를 보며, 이상은 우울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하고 어색한 느낌을 가질 뿐인 것이다. 타율적으로 주어진 일체의 가족 이데올로기, 그 가운데서도 ‘집(家) 위주의 사상’은 이상에게 거추장스러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거나 그로부터 철저히 이탈하지 못하는 이상 그에겐 항상 갈등, 고통, 불안, 우울, 실의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 남아 있다.

‘주어진 가족(운명적 가족)’과의 대결에서 뜻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이상은 ‘만드는 가족(선택적 가족)’ 속에서 적잖은 실험을 행하며 개인적 자유를 과감하게 추구한다. 그는 주어진 가족의 문제에서 주로 조상과 후손, 부모(아버지)와 자식(아들)과의 관계를 자신이 처한 후손과 자식의 입장에서 다룬 반면, 만드는 가족의 문제에서는 부부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남편의 입장에서 다루고 있다. 이상의 작품 가운데서 이런 선택적 가족으로서의 부부관계를 다룬 것으로는 <鳥瞰圖 詩第六號>, <紙碑>, <紙碑> 연작, <追求> 등이 있다.

안해는 아침이면 外出한다 그날에 該當한 한男子를 속이려가는 것이다
順序야 바뀌어도 하루에한男子以上은 待遇하지않는다고 안해는말한다 오늘
이야말로 정말 돌아오지않으려 나보다하고 내가 完全히 絶望하고나면 化粧

은있고 人相은없는얼굴로 안해는 形容처럼 簡單히 돌아온다 나는 물어보면 안해는 모두率直히 이야기한다 나는 안해의日記에 萬一 안해가나를속이려들 있을때 함직한速記를 男便된資格밖에서 敏捷하게 代書한다.

- <紙碑>의 전문

위 시를 통하여 부부 혹은 부부관계에 대한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 이데올로기는 완벽하게 와해된다. 천륜관계, 바깥사람과 안사람, 남편중심(우월)주의, 배타적 성관계, 백년해로, 일심동체, 부성과 모성, 일부일처제, 사랑과 연정 등과 같은 부부 관계 속에 끼어드는 관념 혹은 이데올로기를 이상은 위의 시에서 무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대신 그가 만드는 가족으로서 표상한 부부의 양상과 그 사이의 관계는 ‘아내 - 직업여성/남편 - 백수’, ‘아내 - 창녀/남편 - 집사람’, ‘아내 - 가면/남편 - 가면’ 등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다. 여기서 아내와 남편은 서로가 서로를 어떤 기성의 역할, 가치, 관념 등으로 구속하지 않으며 당연히 서열관계로도 구속하지 않는 관계이다. 그런 관계 속에는 자유, 편리, 차가움, 소외 등이 함께 섞여 있다.

부부관계란 결코 기성의 전통적 가족이데올로기가 만들고 주입시킨 것처럼 그렇게 신성하거나 숭고한 관계일 수 없음을 이상은 다른 작품에서도 계속 밝히고 있다. 그의 작품 『追求』에서 이상은 여전히 직업적 창녀인 아내와 집안에 박혀 있는 백수로서의 남편 사이가 결국은 각자의 허위가 만나는 장임을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작품 <鳥瞰圖 詩第六號>에서 부부란 앵무새 두 필이 이끌어 가는 관계와 같다고 비유한다. 여기서 앵무새란 속마음을 말하지 않고 남의 말이나 겉으로 되풀이하는 상징물이다. 이상의 이런 부부 혹은 부부관계의 드러냄은 부부 사이를 지나치게 미화하여 왜곡시킴으로써 오히려 사람들을 억압한 그간의 부부 및 가족 이데올로기가 지닌 허구성을 폭로하고 교정시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서로가 남인 개인과 개인이 만나 이룩하는 부부 혹은 부부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생활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단일가족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신성한 것도, 절대적인 것도, 신비로운 것도, 불변의 것도 아닌 사회적 구성물이자 사회생활의 한 방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어떤 일이나 관계 속에 끼어드는 소위 ‘숭고한 이데올로기’가 없으면 사람들은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죽

을 수도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송고한 이데올로기’는 비록 환상이라 할지라도 부부관계의 형성과 유지 속에서 방법적 현실로서의 힘을 지닐 수도 있다.

이러한 ‘송고한 이데올로기’가 제거된 이상의 시에 등장한 부부는 늘 절름발이의 관계로 살아간다. 그렇다고 이상은 절망하지 않는다. 부부에 대한 그의 사실적 인식은 원래 부부관계야말로 절름발이 관계와 같은 것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직한 관찰의 결과이다. 따라서 이것은 사실의 사실적인 인식이라는 점에서 가치중립적 성격을 갖는다.

이상의 작품 <紙碑>를 보면 그가 말한 부부의 절름발이 관계가 다음과 같이 묘사돼 있다.

내키는커서다리는길고원다리아프고안해키는작아서다리는짧고바른다리가
아프니내바른다리와안해원다리와성한다리기리한사람처럼걸어가면아아이夫婦
는부추할수없는절름발이가되어버린다無事한世上이病院이고꼭治療를기다리는
無病이끝끝내있다

- <紙碑>의 전문

위 시에서 남편과 아내는 ‘큰 키/작은 키’, ‘긴 다리/짧은 다리’, ‘아픈 원다리/아픈 오른다리’, ‘성한 오른다리/성한 원다리’와 같은 잘 맞지 않는 관계 속에 있다. 결국 위 시에서 부부는 절름발이 관계를 숙명처럼 지니고 산다. 그런데 이런 절름발이 관계로 존재하는 부부에 대한 이상의 진단과 평가가 흥미롭다. 그는 이런 진단과 평가를 시의 뒷부분의 “無事한世上이病院이고꼭治療를기다리는無病이끝끝내있다”는 말 속에서 행하고 있다. 이 뒷부분의 인용문을 해석하면 겉으로 무사한 것 같지만 모든 부부들은 다 병원에 있는 듯 절름발이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그것은 치료를 해야 하지만 병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병이니 ‘無病’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상의 시에서 부부는 어떤 기존의 규범이나 가치에도 영향 받지 않은 채 철저히 개인과 개인이 만나 자의적으로 형성한 것이다. 그때의 개인은 방금 말했듯이 기존의 사회적 압력에 무반성적으로 예속되지 않은 자각적인 개인이다. 사실 인간관계의 일종인 부부의 관계도 ‘교환이론’, ‘욕구상보이론’, ‘권력이론’, ‘갈등이론’ 등¹¹⁾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상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다면, 부부라는 이름으로 자각적인 개인과 개인이 자의적으로 만나는 일이 제대로 인식되고 전제될 때 오히려 진정한 부부관계가 그 위에서 튼튼하게 형성될 수 있다.

이상의 시에 등장하는 만들어진 가족에는 부부 이외에 자녀들이나 부모들이 전혀 출현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제시할 수 있겠으나, 개인과 개인이 처음으로 만나 선택적으로 구성되는 부부라는 가족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야만 그 위에서 자녀의 출생도, 부모와의 만남도 바람직한 형태를 갖출 수 있다는, 소위 긍정적 의미에서의 개인주의가 그의 가족관의 토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요컨대 소위 환상으로서의 기존의 ‘숭고한 가족 이데올로기’를 넘어서거나 제거한 자리에서 이룩된 이상의 이러한 냉정한 개인주의와 그에 기초한 부부관계와 가족관계를 긍정하면, 기존의 숭고한 가족 이데올로기가 조장했던 미화와 기대의 극단도, 그의 다른 이름인 절망과 좌절의 극단도 넘어서서 보다 자유로운 가족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다.

가문과 집(家), 그리고 조상 이전에 자각적인 한 개인이 있다는 인식과, 그런 개인이 중심이 되어 부부관계는 물론 다른 가족관계를 수평적으로, 자유롭게 맺어가고자 하는 소망이 이상의 시에 내재돼 있는 것이다. 그가 그러 보인 가족관계, 특히 부부관계가 파격적이라는 느낌 때문에 어떤 독자들은 당혹스러워하겠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상은 가족관계와 역할 그리고 거기에 부여된 가치의 자발성과 가변성 그리고 유연성을 앞서서 제시하며 사회의 유연성과 개방성을 확대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이런 가족관은 단수성 가족 이데올로기의 강요를 지양하고 보다 다양한 가치와 관념, 그리고 정서를 창조하면서 진정한 ‘차이’ 속에서 ‘생성’으로서의 부부 및 가족관계를 사회 속에 창조할 수 있는 복수성 가족 이데올로기의 형성과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개인주의에 근거하여 가족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냉정하면서도 자유분방하게 제시한 이상의 공로는 적지

11) 조경문·장상희, 『가족사회학』(서울 : 아카넷, 2001), 22~60쪽. 이 책에 제시된 가족연구의 관점들 - 구조기능론적 접근,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접근, 발달론적 접근, 교환론적 접근, 갈등론적 접근, 여권론적 접근 -은 가족과 부부관계에 대한 사실적인 이해를 돕는다.

않다고 볼 수 있다.

Ⅲ. 계급적 연대감과 사상의 가족 - 임화의 시

임화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 1929년 무렵부터 프로문학운동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1932년 카프의 서기장이 되었으며, 해방이 된 바로 다음날 조선문학건설본부를 조직하고 그 지도자가 되었다. 그런 임화가 1947년 월북하였다가 1953년 ‘미제간첩’으로 지목받고 북한에서 처형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언급한 것은 임화의 시가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혁명을 지향하는 가운데 씌어졌다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는 임화가 신봉한 사회 발전과 혁명을 추동하는 이데올로기였고, 그의 시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구현을 위하여 봉사하였던 것이다.

임화의 시 속엔 가족이 적잖이 등장한다. 그러나 그 가족은 사상적, 계급적 동지로서, 혁명의 와중에서 함께 투쟁하며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가 이 땅에 온전히 구현되기를 꿈꾸는 가족이다. 따라서 그의 시가 보여주는 가족은 기존의 가족 개념에서 크게 이탈해 있다. 그것은 아예 사상과 계급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혈연공동체이자 정서공동체, 그리고 경제공동체의 개념까지도 파괴하거나 넘어서는 개념이다.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가족과 친족은 신성불가침의 사적 집단이 아니다. 그것이 비록 가족일지라도 이기적이고 부르주아적이며 봉건적인 사적 집단은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다.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신봉자들은 이러한 모든 사사로움을 넘어 인간사회가 계급에 의하여 동지와 적의 개념으로 재편되고, 사회는 계급투쟁의 단계를 거쳐 마침내는 만인이 동지애로 연대하는 평등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믿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의 실현가능성은 오늘날 상당한 정도를 불신을 받고 있는 터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화의 시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씌어졌고 그의 가족관도 그와 같은 토대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사회를 꿈꾸는 자리에서 척결해야 할 일차적 대상 가

운데 하나가 봉건체제이다. 이 봉건체제 속엔 봉건적 이념에 기초한 전통적 가족개념도 포함된다. 신분관계, 계급관계, 차별관계, 배타적 가문(가족)주의 등이 근본을 이루는 전통적 가족개념은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이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임화는 주로 그의 단편서사시 계열에서 공산주의자로서의 가족의식을 본격적으로 드러낸다. 그의 적잖은 단편서사시에서 그는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시를 쓰는 형태를 취하고 있거니와, 그 가운데는 가족상황과 그 구도가 중요하게 내재돼 있다. 예를 들면 그는 「젊은 순라의 편지」에서 ‘형님’을, 「우리 오빠와 화로」에서 ‘오빠’를, 「어머니」에서 ‘어머니’를, 「네거리의 順伊」에서 동생인 ‘順伊’를 부르는 방식으로 시를 전개하면서 그 속에다 공산주의 혁명 운동에 몰두하는 여러 가족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임화의 시에서 가족을 부르는 화자와 그 가족,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가족들은 모두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사상에 공감하고 그 사회의 실현을 위해 협력 혹은 투쟁하는 사상적, 투쟁적 동지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 따라서 이때 그들은 단지 혈연적, 정서적, 사적, 제도적 차원의 가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사회 속의 연대하는 구성원이 된다.

사랑하는 우리 오빠 어저께 그만 그렇게 위하시든 오빠의 거북紋이 질화
로가 깨어졌어요

언제나 오빠가 우리들의 ‘피오닐’ 조그만 기수라 부르는 永男이가
지구에 해가 비친 하로의 모-든 시간을 담배의 독기 속에다
어린 몸을 잠그고 사온 그 거북紋이 화로가 깨어졌어요

그리하여 지금은 火젓가락만이 불상한 永男이하구 저하구처럼
똑 우리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남매와 같이 외롭게 벽에가 나란히 걸렸
어요

오빠……

저는요 저는요 잘 알었어요

웨 -- 그날 오빠가 우리 두 동생을 떠나 그리로 들어가실 그날 밤에
연거푸 卷煙을 세 개씩이나 피우시고 계셨는지

저는요 잘 알었어요 오빠

언제나 철없는 제가 오빠가 공장에서 돌아와서 고단한 저녁을 잠수실 때
오빠 몸에서 신문지 냄새가 난다고 하면

오빠는 파란 얼굴에 피곤한 웃음을 웃으시며

…… 네 몸에선 누에 똥내가 나지 않니 -- 하시든 세상에 위대하고 용감
한 우리 오빠가 왜 그날만

말 한마디 없이 담배 연기로 방속을 미워버리시는 우리 우리 용감한 오
빠의 마음을 저는 잘 알았어요

친정을 향하여 기여올라가든 외출기 담배 연기 속에서 -- 오빠의 강철
가슴 속에 백현 위대한 결정과 성스러운 각오를 저는 분명히 보았어요

그리하여 제가 永男이에 버선 하나도 채 못 기었을 동안에

門지방을 때리는 쇠소리 바루르 밟는 거치른 구두소리와 함께 -- 가버리
지 안으셨어요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오빠는 불상한 저의 남매의 근심을 담
배 연기에 싸두고 가지 안으셨어요

오빠 -- 그래서 저도 永男이도

오빠와 또 가장 위대한 용감한 오빠 친구들의 이야기가 세상을 뒤쫓을 때

저는 製絲機를 떠나서 百장의 일전짜리 封筒에 손톱을 뚜르트리고

永男이도 담배 냄새 구렁을 내쫓겨 封筒 꿈꾸니를 푼다

지금 -- 萬國地圖같은 누더기 밑에서 코를 고을고 있습니다.

오빠 -- 그러나 염려는 마세요

저는 용감한 이 나라 청년인 우리 오빠와 핏줄을 같이한 계집애이고

永男이도 오빠도 늘 칭찬하든 쇠같은 거북紋이 화로를 사온 오빠의 동생
이 아니예요

그러고 참 오빠 아까 그 젊은 나머지 오빠의 친구들이 왔다갔습니다

눈물나는 우리 오빠 동모의 소식을 전해주고 갔어요

사랑스런 용감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위대한 청년들이었습니다

화로는 깨어져도 火적같은 旗대처럼 남지 안았어요

우리 오빠는 가셨어도 귀여운 ‘피오닐’ 永男이가 있고

그러고 모--든 어린 ‘피오닐’의 따듯한 누이 품 제 가슴이 아죽도 더웁습
니다

그리고 오빠…….

저뿐이 사랑하는 오빠를 잃고 永男이뿐이 굳세인 형님을 보낸 것이겠습
니까

슬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고마운 청년 오빠의 무수한 위대한 친구가 있고 오빠와 형님을
 잃은 수없는 계집아희와 동생
 저의들의 귀한 동무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다음 일은 지금 섭섭한 분한 사건을 안꼬 있는 우리 동무
 손에서 싸워질 것입니다

오빠 오늘 밤을 새어 二萬 장을 붙이면 사흘 뒤엔 새 솜옷이 오빠의 떨
 리는 몸에 입혀 질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누이동생과 아우는 건강히 오늘 날마다를 싸움에서 보냅
 니다

永男이는 여태 잡니다 밤이 늦었네요

-- 누이동생

- <우리 오빠와 화로>의 전문¹²⁾

위 시에 등장하는 가족은 화자인 누이동생, 그 누이동생의 오빠, 그리고 이들
 의 동생인 영남이다. 이 세 사람은 모두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해당되는 공장
 노동자이다. 구체적으로 누이동생은 제사공장의, 오빠는 인쇄공장의, 영남이는
 담배공장의 노동자이다. 그러나 이 세 사람 모두가 의식 있는 프롤레타리아의 공장
 노동자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이들의 주된 목적은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그것의 완성에 있다.

위 시에서 오빠는 지금 감옥에 있다.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혁명 운동을 하다
 가 구속되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오빠를 누이동생은 “위대한 오빠”이자 “용
 감한 청년”이라 생각한다. 그 오빠의 위대함과 용감함을 찬탄하며 누이동생은
 한편으로 그 자신도 사상투쟁의 결의를 다지고, 다른 한편으로 옥바라지를 충
 실히 수행한다. 누이동생은 이런 자신의 삶을 가리켜, “날마다 싸움에서” 보내

12) 본 논문에서 임화의 모든 인용시는 신승엽 편, 『임화전집1 : 玄海灘』(서울 : 풀
 빛, 1988)을 자료로 삼아 인용되었다. 위 시 「우리 오빠와 화로」가 발표된 것은
 1929년 2월(『조선지광』, 1929.2)이며 이 작품이 수록된 시집 『현해탄』은 1938년
 도에 출간되었다.

는 삶이라고 칭한다. 한편 이들의 동생인 영남이는 아직 어리기에 투쟁의 전면
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영남이는 ‘공산소년단원(9세-14세)’을 뜻하는
“피오닐”과 같은 존재로 통하고, 그 역시 가난한 공장노동자로서의 삶에서 고
통을 받지만 형/누나와 뜻을 같이한다.

위 시의 세 가족은 이렇듯 사상적, 계급적, 혁명적 동지이다. 동지로서의 그
들 사이엔 아무런 갈등도 거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혈연공동체보다 더
강력한 동지애로 결속돼 있다.

가족 내에서의 이와 같은 사상적, 혁명적 동지애는 더 나아가 뜻을 같이하는
오빠의 친구들과 이웃가족을 대하는 데까지 확대되고 있다. 위 시에서 오빠의
친구들과 이웃가족들은 자신들의 혈연적 가족 못지않게 투쟁적, 사상적 연대감
속에서 빈틈없는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동지애와 연대감은 현실성을 띤
다기보다 지극히 낭만적이고 관념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혁명의 와중에서 순
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소위 ‘절대공동체’¹³⁾의 순간을 떠올리거나, 공동의 적
앞에서 일시적으로 과격한 동일시가 일어나는 현상을 염두에 두면, 이런 동지
애와 연대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임화의 다른 작품 『네거리의 順伊』에서도 작품 속의 가족은 여전히 가난한
프로계급이다. 세상을 떠난 어머니, 누이동생인 순이, 화자인 오빠가 모두 “서
글프고 가난한” 삶의 주인공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일의 희망을 위해 투쟁하
고, “근로하는 여자”로서, “용감한 사내”로서 투쟁정신과 동지애를 과시하고 있
다. 이들의 투쟁정신과 동지애는 절대적이라 할 만큼 견고하고 그것은 감옥 속
에 있는 청년, 그러니까 순이의 연인에게까지 절대적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미
래의 가족이라 할 수 있는 청년까지를 포함한 순이의 모든 가족은 이처럼 한
가지 사상 아래 한몸처럼 뭉쳐 있는 사상적, 계급적 혁명 공동체이다.

임화의 시에서 형제자매지간, 모자지간이 아무런 갈등도 없는 사상적 동지인
것처럼 부자지간 역시 그러한 사이이다. 임화의 시 『오늘밤 아버지는 퍼렁이불
을 덮고』를 보면 이 점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작품의 화자는 계급투쟁 및 공산
주의 혁명을 위하여 투쟁을 감행하다가 감옥에 갇힌 아버지이다. 아버지는 옥

13) 이 말은 1980년대 광주민주화항쟁을 다룬 최정운의 저서 『오월의 사회과학』(서
울 : 풀빛, 1999)에서 가져온 것이다.

바라지하는 아들을 향하여 동지에 속에서 투쟁을 고무하고 격려한다. 이들 사이는 신분관계나 ‘집(家) 위주의 사상’으로 맺어진 전통적인 부자지간이나, 타산과 이해관계가 작동하는 현실적인 부자지간이 아니라 동지적 애정과 배려만으로 뭉친 ‘동무’와 같은 사이이다.

오늘밤 아버지는 퍼렁이불을 덮고
 노들강 건너편 그 조그만 오막살이 속에 잠자는 네 등을 두드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네가 일에 충성된 것을 생각하며 대님을 묶은 길다란
 바지가 툭 터지는 줄도 모르고
 첩첩히 닫힌 창살문 밖에 밝어가는 한울을 바라보며 두 다리를 쭉 뻗고
 있다
 아직도 내가 동무들과 같이
 오도바이에 실려 ‘불’로 ‘X X X’로 끌려다녔을 때 너는 어린 개미처럼 ‘사
 시이레’ 보퉁이 끼고 귀를 어이는 바람이 노들강 우우를 불어나리고
 있는 집 자식들이 털에 묻혀 스케트 타는 얼음판을 건너
 하로같이 영등포에서 서울로 아버지를 찾아왔다.
 나는 네가 착한 아이라고 칭찬한다.
 그러나 만일 네가 그것 때문에 조금치라도 일을 게을렀다면은
 네가 정성을 다하여 빨아오는 그 양말짝이나마
 어떻게 마음놓고 발에 신을 수가 있었겠느냐
 벌서 선달!
 동무들과 같이 아버지가 한데 묶여 X무소로 넘어올 때
 그러나 만일 네가 만일 네가
 아버지 자식의 사이를 잡어제친 온 동무들과 우리들 사이를 잡어제친
 이 일을 네가 새로운 사업을 위하여 생각하지 안었다면은
 너를 잊어 바리지 않고 너를 한껏 사랑하는 아버지는 마음놓고 X밥을
 입에다 넣지를 못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안다.
 너는 언제나 일에 충실하고 지금도 또한 충실한 것을

(중략)

무엇이 감히 우리들의 자라는 나무를 뿌리채 뽑을 수가 있겠는가
 영리하고 귀여웁고 사랑스러운 아들이 아버지는 요전에도 네 연필로 쓴
 편지를 생각하고
 네 가슴이 똑똑이 뛰고 있는 것을 칭찬하고
 퍼렁이불 자락을 끄어들어 어깨를 덮고 있다 일에 충실한 착한 너를 생각
 하며

- <오늘밤 아버지는 퍼렁이불을 덮고>의 부분

위 시의 화자인 감옥 속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한한 애정을 보낸다. 그 애정의 근거는 혈연이나 관습 또는 가족이라는 제도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동무들이 헌신하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과 혁명 그리고 투쟁의 일을 그 아들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아들도 그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며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보고 “너는 언제나 일에 충실하고 지금도 또한 충실”하다고 칭찬한다. 그런 칭찬과 사상적 동지에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가난도, 옥고도 극복하며 연대감을 키워간다.

임화의 시에 나타나는 가족은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같은 ‘주어진 가족’이 대부분이다. 간혹 결혼 이전의 예비적 가족관계를 이루는 연인 사이가 등장하지만, 그들은 아직 가족으로 간주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 따라서 임화의 시에서는 이 주어진 운명적 가족의 재편성 및 재성격화가 일어나는 셈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때의 주어진 운명적 가족이 지닌 이 땅에서의 일반적 성격은 혈연중심주의, 신분중심주의, 가족(가문)이기주의, 집(家) 위주의 사상 등에 근거해 있다. 이런 전통적이며 보수적이고 전근대적인 가족의 성격은 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변혁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이런 가족의 성격이야말로 그들의 사상을 구현하는 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

실증적인 자료를 찾을 수는 없으나, 임화가 주어진 운명적 가족의 재편성 및 재성격화에 관심을 쏟은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인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과거적인 의미의 가족을 그대로 두고 그가 의도한 공산혁명과 투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임화가 그의 사상의 온전한 구현을 위하여 과거적 의미의 가족, 그 가운데서도 주어진 운명적 가족을 재편성 및 재성격화한 것은 자연스럽다.

임화가 재편성 및 재성격화한 주어진 운명적 가족에서 가족들은 모두 프로계급에 속하는 자로서 서로 사상적 동지이자 투쟁하는 동료로 활약한다. 그는 이런 가족들 사이에 어떤 갈등의 상황도 개재시키지 않는다. 사회주의 창작방법론의 하나인 소위 ‘무갈등 이론’을 연상시키듯이 임화의 시 속에서 가족들은 서로 사상적 동지로서 존경, 인정, 애정, 격려, 배려, 합심, 연대감 등과 같은 긍정적 감정만을 갖고 있다.

임화가 그의 시에서 제시한 위와 같은 가족은 우리 시단에 처음으로 등장한

유형이다. 가족이 계급적 동질성, 사상적 동질성, 혁명(투쟁)의 동질성 속에서 수평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것은 아주 독특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그의 가족이 근대가 만들어낸 자본주의 산업화 속에서 그것의 극복을 위하여 탄생한 가족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지적할 만한 것은 임화의 시에서 여성과 남성의 젠더가 지나치게 고착돼 있다는 점이다. 그의 시에서 남성은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주체적이고 영웅적인 인물인 데 반해 여성은 옥바라지를 하거나 공장노동자로서 프로그래밍의 삶을 사는 정도이다. 따라서 남성이 주인공이라면 여성은 보조자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것을 보면 임화가 비록 계급과 차별 없는 공산사상을 꿈꾸었지만 성 역할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낡은 통념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이 있지만 임화가 보여준 가족상과 그 의식은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가족을 과거적 의미의 가족개념으로부터 아주 멀리까지 해체시켜 재구축한 새로운 가족의 한 실례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임화가 그의 시에서 그러 보였듯이 사상공동체로서의 가족, 더 나아가 가족을 넘어서 세계적 차원의 사상적, 혁명적 공동체의 실현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꿈꾸기일지라도 그것 역시 단일한 가족의식을 깨뜨리는 데 긍정적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IV. 부계중심주의의 가족과 ‘出家’ - 백석의 시

백석은 시에 대한 자각과 그 기법적인 측면에서 모더니스트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의 작품 속에 나타난 가족의식은 매우 보수적이고 전통적이다. 그의 시에서 가족은 회상의 형태를 띠고 기억되는 데다, 더욱이 어린이의 시점에 의하여 조명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이면서도 비판적인 모습을 갖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그의 이런 시엔 주로 주어진 운명적 가족이 등장한다. 그때 그는 이런 가족

에 대하여 별다른 반성을 가하거나 회의를 품지 않는다. 그는 주어진 운명적 가족의 삶과 형태 속에 동화되고 만다.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여우난굴족>을 보아도, 그리고 이와 분위기가 유사한 「古夜」를 보아도, 또 다른 작품 「고방」을 보아도 이 점은 동일하다.

명절날나는 엄매아빠따라 우리집개는 나를따라 진할머니 진할아버지가있
는 큰집으로가면

얼굴에별자국이숨숨난 말수와같이눈도검벽걸이는 하로에베한필을 찐다는
벌하나건너집엔 복숭아나무가많은 新里고무 고무의딸李女 작은李女

열여섯에 四十이넘은홀아버의 후처가된 포족죽하니 성이잘나는 살빛이매
감탕같은 입술과 젖꼭지는더깁안 예수쟁이마을가까이사는 土山고무 고무의
딸承女 아들承동이

六十里라고해서 과랑게뵈이는山을넘어있다는 해변에서 과부가된 코끝이
뽀얀 인제나흰옷 이정하든 말끝에설게 눈물을짜때가많은 큰굶고무 고무의딸
洪女 아들洪동이작은洪동이

배나무집을잘하는 주정을하면 토방돌을뽑는 오리치를잘놓는 먼섬에 반디
젓담그러가기 를좋아하는삼춘 삼춘엄매 사춘누이 사춘동생들

이그득히들 할머니할아버지가있는 안간에들몰여서 방안에서는 새옷의내
음새가나고

또 인절미 송구떡 콩가루차떡의내음새도나고 끼때의두부와 콩나물과뽕은
잔디와고사리와 도야지비게는모두 선득선득하니 찬것들이다

저녁술을놓은아이들은 외양간설 발마당에달린 배나무동산에서 쥐잡이를
하고 고리잡이를 하고 가마타고시집가는노름 말타고장가가는노름을하고 이
렇게 밤이어둑도록 복적하니 논다

밤이깊어가는집안엔 엄매는엄매들끼리 아르간에서들웃고 이야기하고 아
이들은 아이들끼리 웅간한방을잡고 조아질하고 찜방이굴리고 바리깨돌림하
고 호박떼기하고 제비손이구손이하고 이렇게화디의사기방등에 심지를 몇번
이나독구고 흥계답이몇번이나올어서 조금이오면 아룻목싸움 자리싸움을하며
히드득거리다 잠이든다 그래서는 문창에 텅남새의그림자가 치는아침 시누이
동생들이 옥적하니 흥성거리는 부엌으론 섯문틈으로 장지문틈으로 무이징
계국을끄리는 맛있는내음새가 올라오도록잔다

- <여우난굴족>의 전문14)

14) 본 논문에서 인용되는 백석의 모든 시는 정효구 편저 『백석』(서울 : 문학세계사, 1996)을 근거 자료로 삼았다.

위 시의 시간적 배경은 명절이다. 그 명절에 부계중심의 친족들이 큰집에 모여 있다. 화자의 아버지, 세 명의 고모와 한 명의 삼촌, 그리고 그들의 자녀가 부계중심의 친족들이다. 이들 이외에 화자의 어머니, 삼촌의 아내는 이 부계중심의 가족 속에 들어온 ‘外人’이다. 위 시의 화자는 어린이인 데다 부계중심의 가족 입장에서 명절날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의 가족사로부터 아무런 모순도 느끼지 못한다. 그에게 큰집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모인 친족들은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놀면서 화기에애한 것으로만 보인다. 그는 부엌이라는 소외된 공간에 여성들이 모여서, 그것도 부계중심의 친족관계에 의하여 시누이와 동서라는 어색한 관계를 맺고 그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단지 그들이 일하는 부엌의 풍경이 “홍성 거리”고 그곳으로부터 “맛있는내음새”가 흘러나오는 것만을 즐긴다.

누구든, 주어진 운명적 가족과 기존의 관습적인 가족 개념에 대한 별다른 지적 반성 없이 명절날의 가족 혹은 친족들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미풍양속을 실천하는 이른바 ‘신성 가족’이 만들어내는 한 폭의 문화적인 그림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부계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제식행위, 성별에 따른 서열체계, 개인에 앞선 가문주의와 씨족사상 등의 모순을 떠올리고 보면 그 한 폭의 그림 같은 모습 이면에 잠복한 모순과 갈등이 발견될 수밖에 없다.

앞의 인용시에서 부계중심의 가족주의에 의해 ‘부재하는 존재’ 혹은 ‘존재하는 부재’의 형태로 남아 있는 두 여성, 즉 화자의 어머니와 삼촌의 아내를 중심에 놓고 보거나 그들을 담론의 주체로 삼으면서 그들의 시선을 클로즈업시킨다면 가족 내지는 친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명절의 풍경은 아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백석은 「木具」라는 작품에서도 제기인 목구를 보며 아예 다음과 같은 보수적 발언을 하고 있다. 목구란 “내손자의손자와 손자와 나와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와…… 水原白氏 定州白村의 힘세고 곳곳하나 어질고 정많은 호랑이 같은 곰같은 소같은 피의 비같은 밤같은 달같은 슬픔을 담는 것 아 슬픔을 담는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가 앞의 인용문에서 보여주는 부계혈통의 통시적 연결고리는 배타적 씨족주의와 혈족주의 그리고 남성주의의 적나라한 상징체계이다.

그의 다른 작품 『넉넉집 범같은 노큰마니』를 보면 시 속의 영웅적인 주인공은 증조할머니(노큰마니)이다. 따라서 얼핏 보면 여성으로서의 증조할머니가 중심적인 자리에 서서 가계를 지휘하고 운영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여기서 증조할머니는 소위 ‘명예남성’의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이다. 명예남성이란 가부장제 체제가 며느리를 얻은 시어머니에게 부여하는 지위이다. 이 지위의 모순성과 허상을 인식하지 못한 명예남성으로서의 시어머니는 가부장제 체제가 만든 담론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것을 아랫사람에게, 특히 며느리에게 요구하거나 기대한다. 이 작품에서 증조할머니는 시인의 다른 이름인 작품 속의 화자에게 남다른 애정을 보인다. 범같이 무서운 증조할머니가 그에게 이런 사랑을 보이는 까닭은 그가 “노큰마니의 당조카의 맏손자”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부계의 대(代) 이데올로기, 맏이라는 장자 이데올로기, 아들이라는 남성중심의 이데올로기를 이 화자가 만족시켰기 때문이다. 백석은 이런 사실에 대해 아무런 비판적 시선을 보이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회상의 시점으로, 그가 주류에 속한 상태로 경험했던 즐거운 유년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 사실을 우리 앞에 풍경화처럼 그려 보일 뿐이다. 방금 언급한 종류의 시에서 나타나는 이런 가족상은 백석의 가족의식이 지닌 특성이자 한계이다. 하지만 백석의 몇 작품에 나타난 가족상은 새로운 접근을 요구한다. 그 중 <女僧>과 <흰밤>이 문제적이다.

女僧은 습掌하고 절을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났다
 쓸쓸한낮이 넷날같이 늙었다
 나는 佛經처럼 설어워졌다

平安道の 어니 山깊은 금덤판
 나는 파리한女人에게서 옥수수를샀다
 女人은 나 어린딸아이를따리며 가을밤같이차게 울었다

십벌같이 나아간지아비 기다려 十年이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않고
 어린딸은 도라지꽃이좋아 돌무덤으로갔다

山뺨도 설게울은 숲븐날이있었다

山 절의마당귀에 女人의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같이 떨어진날이있었다

- <女僧>의 전문

위 인용시의 주인공이 여승이라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여승은 ‘出家’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출가란 좁게는 가족이라는 집을, 크게는 세속사회라는 인간의 집을 떠나는 일이다. 따라서 출가란 세속사회가 지닌 가족개념의 온전한 부정이자 해체이다. 이것은 이상이나 임화에게서 보았던 것처럼 기존의 가족을 재구조화하거나 재성격화하는 것과 궤를 달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시를 보면 여승의 ‘出家’가 오히려 ‘家出’처럼 느껴진다. 그것은 여승의 출가가 자발적이라기보다 10년이 되어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이 죽음을 맞이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출가이기에 그 출가 속에는 환희보다 슬픔이 배어 있다.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괴로움, 어린 딸의 죽음 앞에서 느끼는 어머니의 절망감, 그런 감정의 수동적인 극복책으로 선택한 출가이다. 이것은 만약 가정적인 어려움만 없었다면 그가 출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짐작을 가능케 하는 점이다. 비교하자면, 여기서의 출가는 가부장제 속의 한 여성이 남편의 비행과 자녀와의 단절로 인해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와 유사하다. 그런 점에서 이런 ‘출가’와 ‘자살’은, 주체적 선택의 자발성을 토대로 한 행위라기보다 가부장제 체제에 의존했던 한 여성의 자학적이며 비사회적인 선택행위에 가깝다.

하지만 이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앞의 인용시 속에 등장한 여승과 그의 삶은 기존의 가족개념에 균열을 가하는 측면이 있다. 여승이 된다는 것 자체가 세속사회가 만든 승인된 가족체제나 그 이전에 존재하는 혈연공동체의 본능성을 비껴가거나 넘어서려는 노력의 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백석의 시엔 守節 모티프가 몇 차례 등장한다. 여기서 수절이란 말할 것도 없이 가부장제 체제가 부계혈통의 순혈주의 이상에 빠져서 만들어내고 교육시킨 여성의 수절을 가리키는 것이다. 과부의 수절을 옹호하고 권장하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인데, 백석은 이 수절의 문제 앞에서 다음과 같은 시를 쓰고 있다.

넛城의돌담에 달이올랐다

묵은초가집웅에 박이

또하나달같이 하이얏게빛난다

언젠가마을에서 수절과부하나가 목을매여죽은밤도 이러한밤이었다

- <흰밤>의 전문

위 시는 달이 뜬 환한 밤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밤풍경 아래서 시인의 숨어 있던 기억이 살아난다. 그것은 이렇게 환한 달밤에 수절 과부 한 사람이 목을 매어 죽은 일이 마을에 있었다는 것이다. 수절 과부란 말은 흔하지만 수절 홀아비란 말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 그만큼 수절 이데올로기를 내외적 요인에 의하여 내면화한 사람은 여성이다. 위 시 속의 수절과부는 단수성 가족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보면 비정상 그룹에 속하는 ‘결손가정’의 구성원이다. 그가 재혼을 하여도, 또 수절을 하여도 비정상의 가족임은 달라지지 않는다. 백석은 위 시에서 그런 인물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그는 위 시에서 언젠가 마을에서 수절 과부 한 사람이 목을 매어 죽었다는 사실을 말할 뿐, 그 다음에 아무런 뒷말도 덧붙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수절과부는 외로움 때문에 자살했을 것이다, 그의 혼외정사가 탄로 나서 자살했을 것이다, 현실적인 생활고로 자살했을 것이다, 죽은 남편을 따라가기 위해 자살했을 것이다, 등등이 그 추측의 내용일 수 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추측의 내용 모두가 실은 수절을 강요하는 사회적 압력의 모순을 그대로 알려주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백석이 뒷말을 적극적으로 이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절과부를 시의 중심에 둔 것은, 여성에게 수절을 요구하는 남성 중심의 가족이데올로기에 대해 그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회의의 시선을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처럼, 백석의 시에 나타난 가족의식은 대부분의 경우 아주 보수적이어서 비판적이며 도전적인 시선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 이 점은 이상이나 임화의 경우와 상당히 다른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장의 후반부에서 살펴본 몇 편의 시에서 보이듯이 그는 보수적인 과거의 가족 이데올로기에 작은 균열을 내고 있다. 그것이 보다 발전된 모습은 이후의 시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가 분단으로 인해 재북 시인이 되어 버린 이후 북조선작가동맹의 일원으로 쓴 시편들을 보면 그는 북한 당국이 요구한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당과 조국을 어버이로 부르며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넘어서 모

두가 사상적 동지애로 하나가 된 사회주의 가족 혹은 공산주의 가족을 그려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물론 분단 이후의 일이지만, 참고로 여기서 언급해 두는 바이다.

V. 결어

지금까지 이상, 임화, 백석의 시를 중심으로 1930년대 우리 시에 나타난 가족의 양상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1930년대 우리 시의 가족의식에 ‘현대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그런 현대성의 내용으로는 ‘단수성 가족(The Family)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복수성 가족(Families) 이데올로기’가 1930년대 우리 시에 수용되고 확산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주지하다시피 1920년대 우리 시에는 기존의 전근대적 혹은 전통적 가족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내는 낭만적 사랑과 자유연애의 문제가 제기된다. 물론 1920년대 우리 시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가족의식은 대체로 단조로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기저에는 여전히 가부장제적인 전통가족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1920년대 시들은 1930년대 우리 시의 가족의식을 현대적으로 변모시키는 데 예비적 단계로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

1930년대로 접어들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가족상과 가족의식은 다채로울 뿐만 아니라 자각적인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 위에서 창조적으로 구성되기 시작한다. 그것은 가족문제에 대한 자의식이 등장하였으며 또한 복수성의 가족이 출현하였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이상의 시에 나타나는 과거적인 전근대적 가족상과 그 개념에 대한 비판과 해체, 그리고 도시적인 현대문명 속에서 자각적인 개인과 개인이 창조적으로 만들어가는 수평적이며 유연한 가족관계는 이전의 가족의식에 비하여 파격적이라 할 만큼 앞장서서 의식의 진전을 보여준 예이다. 이와 같은 이상의 가족의식은 해체주의 혹은 포스트모더니즘이 내재화된 현시점에 놓고 보아도 여전히 진보적이며 의식 있는 사람들의 폭넓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부족

함이 없다.

임화의 시에 나타난 가족상과 그 의식도 파격적이고 신선하다. 물론 조선공산당이 1925년도에 만들어졌고, 카프가 출현한 시기 역시 1925년인 것을 보면, 이미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가족의 시적 출현도 그 당시부터 미미하나마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1930년대의 임화가 창작한 시에 이르러, 미학적 수준도 유지하면서 그 속의 공산주의 사상과 혁명에 입각한 가족상과 가족의식은 본격적이면서 공고한 모습을 드러낸다. 임화의 시에 등장하는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가족은, 후천적으로 선택한 사상이 혈연의 응집성을 뛰어넘어 인간과 인간을 동지적 연대감으로 결합시키고 마침내는 좁은 가족의 영역을 넘어서 전세계적인 연합체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가를 시험해 보인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 요컨대 임화의 시에 나타난 가족은 사회의 가족화(혈연화)를 지향하기보다 가족의 사회화를 지향한 선구적인 실례인 것이다. 이런 임화의 시에 나타난 가족상과 그 의식은 다소 낭만적이며 이상적이다. 하지만 그것은, 기존의 전근대적 단수성 가족개념이 오랫동안 반성 없이 누적되며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것임을 인정한다면,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지적으로 새롭게 성찰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백석은 개인적으로 세 차례의 결혼을 하였으면서도 시에 표면화시킨 가족상과 그 의식에서만은 보수적이다. 그는 시간적으로 보면 회고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공간적으로 보면 유랑자의 입장에서 가족을 바라보았다. 이런 입장에 처해 있다고 하여, 가족의식이 꼭 보수적이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시를 쓰면서 특별히 가족문제에 반성적 시선을 보낸 것 같지 않고 그 결과 전통적인 가족상과 가족의식을 그대로 수용한 듯하다. 하지만 그의 몇 작품에서 그는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상과 가족의식이 지닌 문제점은 물론 다양한 가족형태의 가능성을 은연중에 드러내 보이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930년대 우리시에 나타난 가족상과 그 의식은, 가족이 절대성을 지닌 본능적이며 고착된 집단이라기보다 후천적인 사회적 구성물이자 창조적 생산물이고 생성과 변화의 도정 위에 놓여 있는 제도적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실례이다. 이것은 1930년대 우리 시에 나타난

가족상과 그 의식이 ‘현대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는 표지가 된다. 이와 같은 1930년대 우리시의 가족상과 가족의식은 기존의 단수성 가족 이데올로기 속에 내재해 있던 중심주의와 서열화 및 배제의 폭력성을 해체하고, 그 위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로 유연하게 열린 가족을 재구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앞서서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1930년대의 우리시가 미학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의식의 측면에서도 현대성을 지녔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를 한 가지 더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족이데올로기의 종언’을¹⁵⁾ 선포하기에 이른 이 시대에, 1930년대 우리시가 보여준 이런 선구적 성격을 살펴보는 일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 가족, 단수성 가족, 복수성 가족, 탈가족주의, 현대성

15) 김미현, 「가족이데올로기의 종언」, 『여성문학연구』 13(2005. 6), 137~166쪽. 이 글에서 김미현은 1990년대 이후의 우리 소설에 나타난 탈가족주의의 실상을 ‘근대의 핵가족’에서 포스트모던한 ‘유연가족(permeable)’으로의 변화로 읽어내고 있다. 그것은 비록 소설에 대한 언급이고 논의이지만 참고할 만하며, 그가 말한 바 포스트모던한 유연가족의 선구적 시발점을 시의 경우엔 1930년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신승엽 편. 『임화전집1 : 玄海灘』. 서울 : 풀빛, 1988.

이승훈 편저. 『李箱詩全集』. 서울 : 문학사상사, 1983.

정효구 편저. 『백석』. 문학세계사, 1996.

2. 국내외 논저

기틴스, 다이애너. 『가족은 없다』. 안호용 외 옮김. 서울 : 일신사, 1997.

김동일 편저. 『성의 사회학』. 서울 : 문음사, 1991.

김미현. 「가족이데올로기의 종언」. 『여성문학연구』 13(2005.6.), 137~165쪽.

김진송. 『서울에 판스홀을 許하라』. 서울 : 현실문화연구, 1999.

러너, 거다. 『가부장제의 창조』. 강세영 옮김. 서울 : 당대, 2004.

바렛, 미셸 · 매리 맥캔토시. 『가족은 반사회적인가』. 김혜경 옮김. 서울 : 여성사, 1994.

신명직. 『모던 뽀이 京城을 거닐다』. 서울 : 현실문화연구, 2003.

여성한국사회연구소 편. 『가족과 한국사회』. 서울 : 경문사, 2003.

월슨, 에드워드. 『인간본성에 대하여』. 이한음 옮김. 서울 : 사이언스북스, 2002.

이득재. 『가족주의는 야만이다』. 서울 : 소나무, 2001.

이재경. 『가족의 이름으로』. 서울 : 또하나의문화, 2003.

이혜원. 「1920~1930년대 시에 나타난 가족과 여성」. 『여성문학연구』 13 (2005. 6), 57~85쪽.

전인권. 『남자의 탄생』. 서울 : 푸른숲, 2003.

정연보. 『인간의 사회생물학』. 서울 : 철학과현실사, 2004.

조정문 · 장상희. 『가족사회학』. 서울 : 아카넷, 2004.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서울 : 문학과지성사, 1988.

최시한. 『가정소설연구』. 서울 : 민음사, 1993.

최재석. 『한국가족연구』. 서울 : 일지사, 1982.

최재천. 『여성시대에는 남성도 화장을 한다』. 서울 : 궁리, 2004.

최정운. 『오월의 사회과학』, 서울 : 풀빛, 1999.

한국서양사학회 편. 『서양의 가족과 성』. 서울 : 당대, 2000.

<Abstract>

A Study on the Family of 1930's Korean Modern Poetry

Jeong, Hyo-Goo

The object of this writing is to examine the family aspects and their significance expressed in the Korean poems of the 1930s. This object is based on the judgement that the family consciousness represented in those poems show 'modernity'. What 'the modernity' of the family consciousness in this context means is that the idea of 'Families (multiform family)' is not only self-consciously explored but also extended, beyond 'the Family (uniform family)' ideology.

Yi Sang, Yim Hwa and Baek Seok are the representative poets of the 1930s who display the emergence and real aspect of the idea of Families (multiform family).

In his poems, Yi Sang articulates the idea that an individual precedes a family and an individual as a member of a family is related with market economy. He expresses himself in favor of individuality against the ideology of family honor. He also sees a vision of unprejudiced human relationships among individuals in opposition to the values centered on the blood-tied family.

Yim Hwa is a socialist and the family which he represents is tied with revolutionary companionship. In his poems set in this context, a community precedes an individual and the fulfillment of a socialist community overshadows a family.

In this sense, individuals are to feel connected to one another as a family only when they pursue the common value in achieving a revolution based on

socialism.

The family represented in Baek Seok's poems is basically a traditional and conservative one. The ideas of the large-family, patrilineal and consanguineous systems lie in his poems, though there appears some digression, which involves an interest in a Buddhist nun who leaves her family and renounces the world, and a scepticism of women's chastity ideology.

As discussed above, the fact that the idea of the Families (multiform family) is prevalent in the Korean poems of the 1930s shows that even a family is not an ultimate and established group which bears any absoluteness but only a social construction, or a kind of system which is in a process of formation and undergoes shifts. This is an example early shown which explores the possibility that any social systems or values could be reconstructed after overcoming the violence of essentialism and hierarchy.

Key Words : family, the Family, families, anti-familism, modernity